

2011년 세계 해외직접투자(FDI) 동향

1. 개요 1)

□ 2011년 해외직접투자는 1.5조불로 전년대비 17% 증가

-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07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나, 2년 연속 증가세로 금융위기 3년 평균 수준을 회복
- 선진국, 개도국, 체제전환국 모두에서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,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으로의 투자액이 전년 이어 절반 이상 차지
 - 선진국 7,532억불(49.9%), 개도국 6,637억불(44.0%), 체제전환국 917억불(6.1%)
- * 우리나라 2011년(~11월) 해외직접투자액 223억불
 - 선진국 90억불(40.3%), 개도국 131억불(58.7%), 체제전환국 2억불(1.1%)

<세계 FDI 추이>

(억불)

'05~'07 평균	'07	'08	'09	'10	'11(P)
14,720	19,690	17,440	11,800	12,897	15,086

1) 본 보고서는 UNCTAD의 Global Investment Trends Monitor('12. 1월) 내용을 발췌한 것이며, 2011년 통계는 추정치임.

2. 전세계 해외투자 동향

□ 세계 해외직접투자는 2011년동안 일정 수준 유지

- 경영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직접투자(FDI)는 증가세가 유지된 반면, 시세 차익 등을 목적으로는 간접투자(Foreign Portfolio Investment)는 유럽 재정위기 이후 급격하게 감소

* '10년 기준 전 세계 포트폴리오투자액은 40조불(IMF 추산)임.

- 2005년 평균투자액을 100으로 하였을 때 해당 분기의 투자 지수가 직접투자는 140~150을 유지한 반면, 간접투자는 2/4분기 75에서 3/4분기 0 수준으로 하락

3. 지역별 동향

□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의 유입액은 역대 최고치인 7,554억불을 기록하였으며, 해외투자액의 절반 이상 차지

- 최근 투자 유입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였던 아시아(서아시아 제외)는 3,437억불로 11% 증가하였으나 증가세가 둔화
- 중남미는 2010년 1,608억불에서 2,164억불로 35% 증가, 체제전환국은 702억불에서 917억불로 31% 증가
 - 자원 개발 투자 호조와 소비시장의 확장, 금융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한 케이만군도 등 역외금융센터 유입 등에 기인
- 아프리카는 544억불로 1% 감소하여 3년 연속 침체
 - 이집트, 리비아, 튀니지 등 북아프리카 지역 투자 크게 감소

□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던 선진국 7,532억불로 18% 증가

○ 북미는 8% 증가, 투자 침체가 지속되었던 유럽은 23% 증가

* 투자 증가국 : 이태리, 프랑스 / 투자 감소국 : 그리스, 독일

○ 유럽은 주로 기업 구조조정, 경영합리화 등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목적의 M&A가 증가하였으며, 특히 비핵심 자산의 매각 관련 M&A가 크게 증가

4. 투자 형태별 동향

□ 직접투자는 M&A(기존 법인의 인수)와 그린필드(신규 법인 설립)로 구분할 수 있으며, 비중은 4:6 정도임.

□ M&A는 전년대비 50% 증가, 그린필드는 3% 감소

○ 2010년 하반기 공표된 대형 거래가 2011년 중 완료되어 M&A 투자가 전년대비 50% 증가

- 선진국은 자원개발, 제약업 중심 M&A 증가, 개도국은 감소

○ 그린필드는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와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2011년 2분기부터 3분기 연속 감소하며 연중 3% 감소

5. 세계 해외직접투자 전망

□ UNCTAD, 2012년 FDI 규모 약 1.6조불 예상

○ 다만, 유럽 재정 위기로 인해 촉발된 유로화와 금융 시장의 불안정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2011년 4분기에 나타난 투자 위축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.

6. 시사점

□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, 세계 대비 견고

- 2000년대 중반 들어 크게 증가한 해외투자가 금융위기 이후로 크게 감소하지 않았으며, 2011년에는 역대 최고치 초과 전망

* '08년 238억불 → '09년 201억불 → '10년 232억불 → '11년 256억불

□ 개도국, 중남미 지역 진출 기업 지원 강화

- 성장성과 수익성이 양호한 개도국, 중남미 지역 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및 투자환경 정보 제공 등 비금융 서비스 제공 강화 필요

* 우리나라 현지법인 당기순이익률('10년) : 선진국 0.7%, 개도국 2.9%

□ 해외 M&A 동향 파악 및 전략적 해외투자 추진

- 세계 경제 위기 이후, 저평가 기업 매물이 많을 수 있으므로 M&A 시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우리 기업의 금융수요에 적기 대응

* 2011년 우리나라 해외 M&A 규모 : 58억불(전체 해외투자의 23%)

- 향후 해외투자는 해외시장 진출, 자원개발, M&A 위주로 추진되어야 하며 저임 활용은 축소될 필요
- 현지법인 신용 대출, 해외 동반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 강화 필요